

2024년 5월 26일(주일) 제1684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 흥해작전

##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일시 2024.06.06(목) ~ 06.22(토)  
강사 손달익 위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06.17(월)~06.22(토), 오전 05:00~06:00

새벽기도회  
06.06(목)~06.15(토), 오전 05:30~06:00

## 2024 흥해작전 준비 시작하다

2024 흥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흥해작전을 섬길 위원들은 변화된 흥해작전 홍보와 진행 방향을 위해 매 주일 회의와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2024 흥해작전과 섬기는 분들과 흥해작전 중 말씀을 전하시는 손달익 위임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4 흥해작전을 섬길 일꾼들-

- 지도: 현종필 목사
- 본부장: 김혜연 장로
- 차장: 장창수
- 기획분과: 이승준/이점순 노애리
- 예배분과: 황병석/주일 1 2 3부, 찬양예배 예배위원
- 찬양분과: 김영희/각 찬양대 대장
- 동원분과: 김형상/각 교구 간사 및 다락방장
- 홍보분과: 유은경/김규태 허숙 김애리1 김영숙 김연화 김양지 유승현
- 봉사분과: 최복희/빌립 안드레 모세 리브가 한나 에스더
- 차량분과: 김웅기/조서현 김재환 이점순 임승한 정성우 스테반회 차량관리부
- 재정분과: 정완진
- 교육분과: 김세호/각 교회학교 부장

## 기도가 먼저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 새가족 환영회

대상: 2024년 1월-5월까지  
새가족 교육 수료자

언제: 2024. 5. 26(주일)  
2부예배 후 802호

새가족환영부

## 교적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기

### 주일 촬영 오늘 마감

주일 교적 사진 촬영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이 오늘 마감합니다. 현재 703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 촬영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도들은 방문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어려운 성도들은 31일(금)까지 703호를 방문하셔서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21-22)

## 제17대 장로로 임우택 안수집사 피택 제16대 안수집사 10명, 제15대 권사 22명 피택



임우택 안수집사

지난 주일 실시된 공동의회에서 제17대 장로로 임우택 안수집사가, 제16대 안수집사·제15대 권사는 안수집사 후보 10명과 권사 후보 22명 전원이 피택 되었습니다. 먼저 실시된 제16대 안수집사, 제15대 권사 투표는 공동의회 참석인원 34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후보 전원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피택 되었습니다.

이후 실시된 제17대 장로 투표는 후보 8명 중 5명을 선택하는 1차 투표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어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가회원 329명 중 234표를 얻은 임우택 안수집사 1명 만이 피택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은 장로의 경우 노회와 교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교육을 받아 오는 11월 24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각각 임직하게 됩니다.

피택된 모든 이들이 연단을 거쳐 교회의 중직을 맡은 청지기로 쓰임 받게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신앙인

마 3:1-12



손달익 위임목사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3절) 세례 요한은 야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 1.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에 앞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6절)고 했고, 막 1:4에는 그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세례는 회개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의 가장 긴급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긴급하다고 본 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지닌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들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겼고, 율법이 주어졌고 예배와 절기와 할례와 거룩한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에 대한 영적 성찰의 결과로 심각한 죄인 상태임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보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사 6:5).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자기의 죄인 됨의 심각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죄인 됨의 발견은 세속적인 욕망의 포기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비움입니다. 회개란 자기 내면을 철저히 비우는 결단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거듭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존엄하고 고귀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삶이 누추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너무나 깊은 회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 2. 회개의 열매

세례 요한은 세례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10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해도 율법의 조항들을 생각했고 문을 열고 나오고 들어갈 때에도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자랑으로 생각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때를 따라 헌금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신앙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자식을 얻으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율법 전승하는 것을 부

모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 생각했습니다. 생활 자체의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가 일상의 삶을 지배했고 종교 권력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들에게 더 필요한 열매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을 위선적이고 진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가 매우 높았을 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안정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와 야인이 되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회개한 사람에게 적합한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욕심 가진 자는 욕심을 내려놓고, 권력을 가진 자는 군림과 지배욕을 내려놓고, 원수를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든 사람은 그 칼을 던져버리는 것이 회개한 자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농사 잘 지은 사람은 창고를 더 크게 지을 생각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고, 두 벌 옷을 가졌으면 한 벌을 나누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뿌리 위에 놓였다고 하면서 속히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 3. 알곡은 곳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11,12절)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인간의 근본적 변화와 거듭남을 구현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그가 우리를 알곡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존재하는 곳에 예수님은 불과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역사의 결실들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발견하기 어렵고, 죄를 알아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고 해도 회개하고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성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발견하기 어렵고, 죄를 알아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고 해도 회개하고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성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근본 요소가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이 회개하는 능력을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독일교회는 한때 나치에 협조하고 그 선동대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아리안 족의 메시아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 정신을 차렸을 때 독일교회는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 가담에 전율했고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했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독일교회는 다른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진실하고 담대한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2차 대전 중의 독일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세계 교회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참회했습니다. 독일교회의 회개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시의 잘못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능력 많은 분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길은 회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깊은 회개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알곡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시도록 회개와 변화로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홍해작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황병석 안수집사  
(2024 홍해작전  
예배분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 안수집사이자 예배분과 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저는 매년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홍해작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한 기도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성경 속 기적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었고,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

는 물에 삼켜졌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만드실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체험하며,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동체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해작전이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 매일 매일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올해 홍해작전에 임하면서 저는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여, 신앙의 여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겪는 시련의 홍해를 건널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반기 살롬대학을 마치며

##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지성철 안수집사  
(살롬대학 부장)

'모두에게 때가 있다.'

목욕탕 간판의 글귀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성도교제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 생각합니다.

살롬대학을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라 전도사님을 지도교역자로 교사 13명과 6개반(보드게임반, 위습체조반, 미술반, 손뜨개반, 탁구반, 바둑반), 학생 25명으로 구성되어 1부에 예배드린 후 2부는 지원한 반별로 준비와 성의를 다하는 교사와 하나님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시에 8층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교제 후 박전도사님 인도 하에 웨민홀에서 자율적이고 간절한 통성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6:35-15:1) 예수님의 ego eimi(인격의 이름) 7가지 1. 생명의 떡 2. 세상의 빛 3. 양의 문 4. 선한 목자 5. 부활이요 생명 6. 길이요 진리요 생명 7. 참 포도나무 등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매주 일깨워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봄나들이로 뮤지엄 그라운드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님의 한지 걸작품을 감탄하며 감상하고, 점심은 가성비 있는 식당에서 하고, 카페 M에서 차 한잔 후, 전도사님의 게임 진

행으로 배움을 잡고 웃으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종강예배 2부에서는 워쉽 체조반의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부채춤 공연과 '하하호호' 다양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나 이빠' 하며 박장대소한 후 수료 단체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백도환 부장님을 선두로 임미경 부장과 교사들의 완벽한 팀워크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9월 2학기에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살롬대학에서 뵈겠습니다.

**"선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전 3:12)



##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김정미 권사  
(3교구)

교회의 성경대학은 저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주중의 성경공부는 나무를 보고 목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긴장감을 이어가는 것은, 현대인들의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같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놀라운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현종필 목사님은 여호수아서의 배경 구조와 정복과 정착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 시키

셨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승리와 축복이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는 대장정은 여호수아가 제 2의 모세로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눈앞에서 기적과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의 기적을 기념하여 길갈에 열 두 돌을 세우게 하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의 기념비로 믿음이 이긴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기회로 여기게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시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

어 나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통해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성경공부는 역사를 인식하게 하고 세계사의 근원이며 특히 상상력으로 예술적 영감을 줍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 체험을 보게 되었고,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안식은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적 안식입니다.

성경공부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평소에 간략히 알고 있던 내용,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하여 지도해 주시니 깊은 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신 분들과 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갈라디아서 반을 마치고



나현주 권사  
(2교구)

바울서신 중 첫 번째 책인 갈라디아서는 AD 50-60년쯤 바울의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분수령이 되었고 유대교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를 전 세계 복음화로 전

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하게 만든 시발점의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율법 없는 반쪽 믿음이라고 호도하여 갈라디아교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반박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직접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당성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율법과 할례 등의 다른 복음을 꾸짖으며 은혜

에 머물기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 책은 단호히 믿음만이라고 단언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자기노력, 교회생활의 직함 등 수많은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되묻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에 도전 받으며 행복하지만 아픈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 지난주 우리 교회는



① ② ③ ④ 지난주 5월 18일(토) 우리 교회에서 열린 강남노회 주최 '제5회 선교찬양잔치', 우리 교회 '필그림 중찬단(지휘:최영은 집사, 반주:홍혜란 집사, 감우균 집사, 김은석·오명걸·김영희·장상국·최용·김규원 안수집사)과 식사 준비와 배식에 수고하신 전도회 회원들  
⑤ 리브가전도회 야외 예배



## 6강: 율법을 주신 이유

### 훈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훈육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신병훈련과 같은 양성교육 및 유격교육과 같은 보수교육,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나 학군단의 사관후보생의 훈련을 담당하는 일종의 담임교관을 훈육관이라고 합니다. 훈육을 담당하는 교관이 훈육관인데, 훈육에 대해서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훈육은 피교육자를 교사 혹은 훈육관이 의도하는 특정한 인성이나 특성을 갖도록 기르는 것이다. 흔히 품성이나 도덕성 따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덕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가르치려는 훈육(薰育)과는 달리 훈육(訓育)은 강제성과 체벌 등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훈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6174>, [접속 2024. 3. 9].

“품성이나 도덕성 따위를 기르는 것”이든 의도하는 “특정한 인성이나 특성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든 훈육에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과 체득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몸에 익힘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는커녕 조금만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40년간의 광야생활이 필요했는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동시에 당근과 채찍을-자비와 정의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면, 처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대로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율법이 지키기에 너무 어려워져서 지키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

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14절

아마도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을 어려운 것, 먼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 등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음이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 하면, ~한다”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록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직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을 때만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자신들의 입과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

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죄뿐임을 알도록 함정수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부당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알고 계셨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지킬 만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9문에서도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9문의 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여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율법에 순종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약속된 선물들이 본래는 이미 주어졌던 선물들이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선물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순종해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식사 제공



- 6교구 노문환 원로장로·장정화 은퇴권사 가정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고 강애자 권사

조민주·조범수 성도

지난 3월 31일 부활절 주일에 교회에 식사를 제공하셨던 조민주·조범수 성도의 사진이 누락되어 올려드립니다. 1월 15일(월) 별세하신 고 강애자 권사님(8교구)의 두 아드님은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만나홀 식사를 섬기셨습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이정환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 70인전도대 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5.1	도르가, 루디아, 뵤뵤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8	마리아
5.12	자원자	바울, 엘리야	5.15	석가탄신일
5.19	자원자	모세	5.22	리브가, 에스더(오후 2시-3시)
5.26	자원자	이삭	5.29	권사회

##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5월27일	월	느 5-7	민36	시80	사28	요이1
5월28일	화	느 8-10	신1	시81,82	사29	요삼1
5월29일	수	느 11-13	신2	시83,84	사30	유1
5월30일	목	에 1-3	신3	시85	사31	계1
5월31일	금	에 4-10	신4	시86,87	사32	계2
6월1일	토	읍 1-3	신5	시88	사33	계3
6월2일	주일	읍 4-7	신6	시89	사34	계4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2. 서울교회 17대 장로, 16대 안수집사, 15대 권사 피택자들이 충성된 천국일군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4대 담임목사님 청빙 등 교회의 사역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3. 격변하는 시대, 격랑이는 세계정세 속에서 주님께서 선장 되시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훈
- ◇ 협동목사  
양정호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 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